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문익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ijmoon@kiep.go.kr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cklee57@kiep.go.kr

최필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pschoi@kiep.go.kr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이효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연구원
hyojinlee@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3년 우리 경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26.1%나 될 정도로 중국은 무역, 투자 등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함.
 - 더불어 중국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향상되면서 샤오미, 알리바바, 레노버, 바이두 등의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점차 한국의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인식되기 시작함.
 - 중국 정부는 2013년 제18기 3중 전회를 통해서 국유기업 개혁을 경제체제 개혁중에서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음.

- 최근 중국 국유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지가 발표한 2014년 글로벌 500대 기업중 중국기업이 91개를 차지하면서 중국석유(Sinopec), 페트로 차이나, 중국건축 등의 국유기업들이 1, 2, 3위를 기록함.
 - 이중에서 8개만이 민영기업들이며 나머지는 국유기업들임.
 - 그러나, 중국 국유기업들은 석유화학, 철강, 화학공업 등 대부분이 중공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업 수익의 비효율성, 인사제도의 폐쇄성, 경쟁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유기업 개혁이 산업구조조정과 연계되어 가속화된다면, 향후 중국기업들은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서 최대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아마도 양면의 날처럼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의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하였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혼합소유제

- 중국은 2013년 제18기 3중 전회에서 적극적인 혼합소유제 추진, 국유자본 투자부문의 민간자본 개방, 국유자산경영제도 개혁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
 -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은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다양한 소유제의 공동발전을 도모
 - 혼합소유경제의 적극 발전, 국유기업의 현대적인 기업제도 완비, 비공유제의 건전한 발전 추구를 주요 개혁과제로 설정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개혁 목적에 따라서 경영자 울권 및 이윤추구, 현대적 기업제도 수립, 국유자산 및 기업 관리·감독, 혼합소유제 발전 등을 추진
-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은 혼합소유제이며, 단순히 국유기업의 민영화보다는 국유자본의 기능 확대 및 경쟁력 제고로 해석됨.
 - 혼합소유제는 1997년 제1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혼합소유제는 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의 교차 지분소유를 의미하고 있음.

표 1. 중국의 단계별 국유기업 개혁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기	1978~92년	1993~2002년	2003~12년	2013년
핵심 방향	경영 자율권 및 이윤추구 (유보)	현대적 기업제도 수립	국유자산 및 기업 관리·감독	국유자산 관리제도 완비, 혼합 소유제 발전
주요 내용	- 중앙집권 계획경제의 사회복지 제공 기능→분권을 통한 경영자주권 확대, 이윤유보 허용, 시장경쟁에 참여하도록 유도	- 국유기업의 흑자경영 달성을 위한 구조조정 및 효율성 제고인식; 구조조정, 통폐합, 주식제 등 - 국유기업의 재산권 구조 다양화	- 중앙과 지방 간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에서 오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관리체제 개혁 중점	- 국유경제의 전략적인 조정과 국유자본의 합리적인 관리 강화
관련 조치 및 정책	- “국영공업기업 경영관리 자율권 확대에 관한 규정 (1979.7)” - 방권양리 - 이개세 - 청부경영책임제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1993. 11. 14기 3중전회) - 100개 시범 기업 대상으로 현대기업제도 수립 추진(1994) - 15기 4중전회(1999.9)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정비 문제에 대한 결정 (2003년 16기 3중 전회)”: 국유자산 관리감독 체제 건설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설립(통일적 관리감독, 중앙과 지방의 비금융계 국유기업관리)	- 18기 3중 전회 - 2014년 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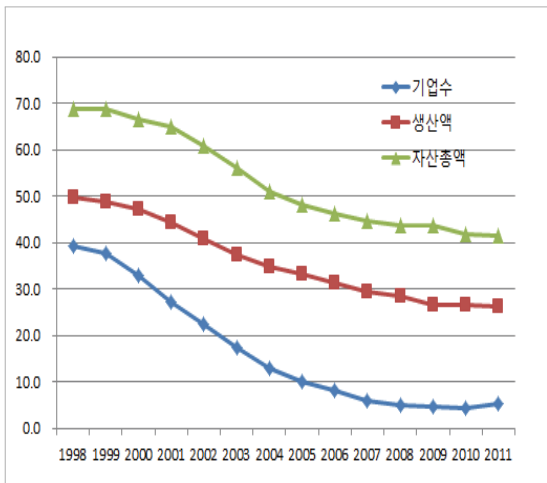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그러나 중국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혼합소유제는 국유기업의 전면적인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유자본의 기능 확대 및 경쟁력 제고로 해석됨.
-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형태로 국유기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본력이 우세한 국유기업 중심의 공유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민영기업에 비해 낮음.

- 국유기업의 점유율은 2001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11년 기간 동안 감소추세가 다소간 완화
- 2012년 국유기업의 이익/자산 비율은 0.05이나 민영기업의 이익/자산 비율은 0.13을 차지하면서, 국유기업이 민영기업에 비해서 낮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2년 국유기업의 이익/매출액 구조는 6.6%를 차지한 반면, 민영기업은 7.1%를 차지하면서 민영기업이 높은 이익/매출액 구조를 지니고 있음.

그림 1. 광공업부문에서의 국유기업 점유율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연감.

그림 2.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수익성 비교

연도	국유기업		민영기업	
	이익/매출액	이익/자산	이익/매출액	이익/자산
2006	8.7%	0.06	4.9%	0.08
2007	9.1%	0.07	5.5%	0.09
2008	6.4%	0.05	6.3%	0.11
2009	6.4%	0.04	6.1%	0.11
2010	8.0%	0.06	7.3%	0.13
2011	7.6%	0.06	7.4%	0.14
2012	6.6%	0.05	7.1%	0.13

자료: 중국국가통계연감.

나.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력 분석

● 중국 금융 및 거시경제 지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Wind에서 제공하는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들의 571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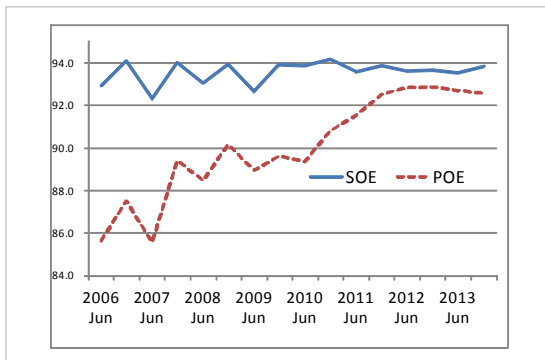
-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업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총 571개 중에서 중국 국유기업이 300개, 지방국유기업이 57개, 민영기업이 214개를 차지함.

- 중국 국유기업들의 경쟁력은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며, 생산성은 매출액을 변수로, 수익성은 순이익, 영업이익, 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이익률을 변수로 사용함.
- 생산성 측면에서는 인적자본과 물적자본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
 - 민영기업의 인적자본이 국유기업보다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국유기업의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생산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익성 측면에서는 A주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수익성 측면에서는 최대주주와 10대 주주의 지분율이 양(+)의 계수를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
 - 중앙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는 음(-)의 계수로 나타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다.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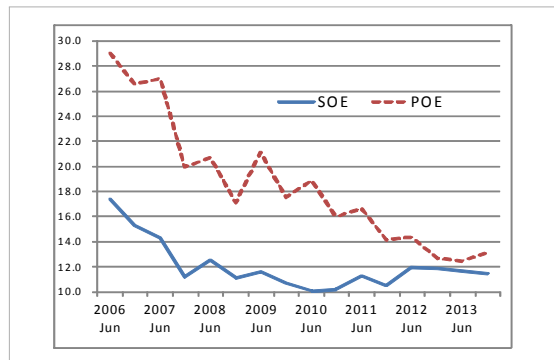
- 다각화 자체는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커지는 반면에 비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작아지고 있음.
 - 국유기업의 관련 다각화 비중은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 비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11~12%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음.
 - 민영기업의 관련 다각화의 비중이 높아지다가 최근 몇 년간 92% 수준을 지키고 있으며, 비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그림 3. 관련 다각화 비중



자료: WIN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 비관련 다각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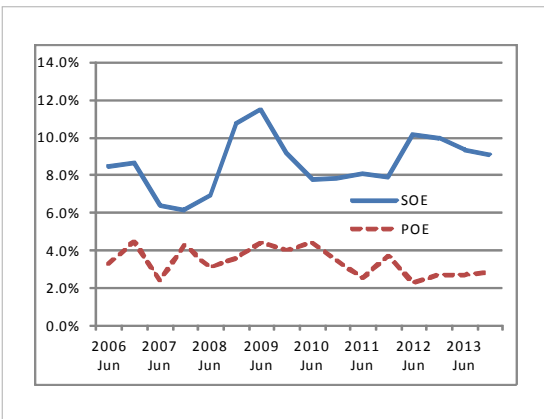


자료: WIN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은 없는 **비이윤부문**의 개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기 때문에 비관련 부문으로 확장할 유인이 많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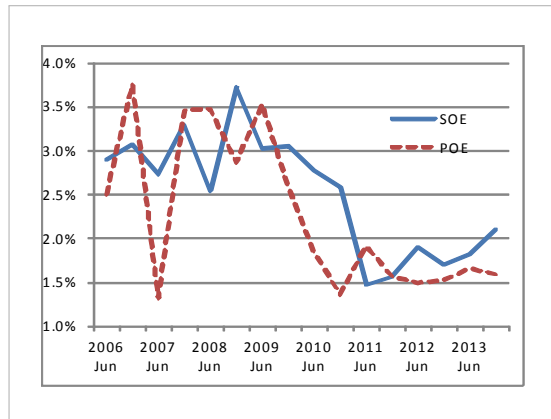
- 비관련부문에서의 비이윤부문의 비중이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모두 2011년을 전후로 비이윤부문 개수의 비중이 감소함.
- 비관련부문으로의 다각화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해야 함.

그림 5. 관련 비이윤부문 개수 비중 추이



자료: WIN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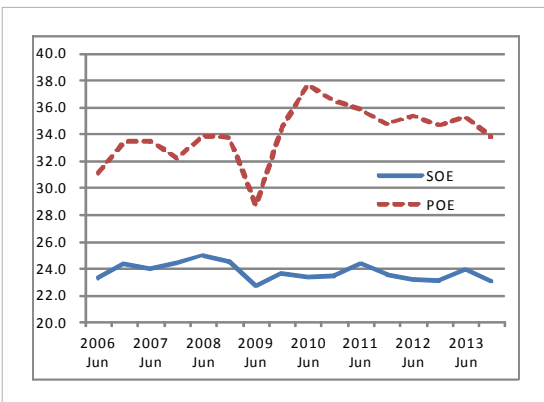
그림 6. 비관련 비이윤부문 개수 비중 추이



자료: WIN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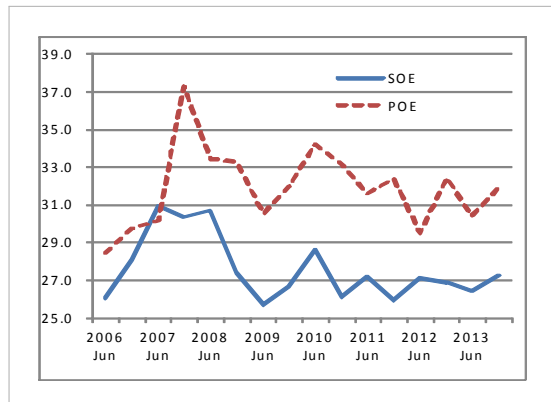
●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부문이 더 큼.

그림 7. 관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추이



자료: WIN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8. 비관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추이



자료: WIN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2. 중국의 단계별 국유기업 개혁 과정

중점산업	2015년까지의 목표
자동차	- 상위 10개 완성차업체의 산업집중도 목표 90% - 핵심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집단 3~5개 형성
철강	- 상위 10개 업체의 산업집중도 목표 약 60% - 핵심경쟁력,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집단 3~5개 및 지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집단 6~7개 형성
시멘트	- 상위 10개 업체의 산업집중도 목표 35% - 시멘트 클링커 생산능력 1억 톤 이상, 내부 생산체인을 완비하여 핵심경쟁력을 가진 기업집단 3~4개 형성
조선	- 상위 10개사의 산업집중도 목표 70% 이상 - 세계 조선업 상위 10위에 들어가는 기업 5개 이상
전해알루미늄	- 상위 10개사의 제련량 산업집중도 목표 90% -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업집단 3~5개 육성
희토류	- 채굴·제련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을 줄이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구조 형성
전자통신	- 판매수입 1천억 위안 이상의 대형 핵심기업 5~8개 형성 - 판매수입 5천억 위안 이상의 대기업 육성
의약	- 상위 100개사 판매액의 산업집중도 목표 90% - 필수약품: 상위 20개사의 판매수입 산업집중도 80%
농업	- 자주혁신능력, 가공능력 제고, 주도적인 대기업 육성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2013)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5216906/n15217002/15218043.html> (accessed September 23, 2014) 참고 저자 작성.

라.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재편 전망

● 국유기업 개혁은 산업구조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

- 중국은 2013년 1월에 산업구조조정정책인 ‘중점산업의 기업합병과 구조조정에 관한 지도의견’(工信部聯產業[2013]16號)을 발표
- 산업집중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알루미늄, 희토류, 전자통신, 의약, 농업 등 9개 중점산업을 지정
- 2015년까지 상위 10개 업체의 산업집중도 목표가 자동차 90%, 철강 60%, 시멘트 35%, 조선 70%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됨.
- 중국은 전반적으로 산업집중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10년 동안 산업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구조재편이 하나의 거대한 추세가 될 것임.

● 향후 일반적 경쟁산업, 전략적 경쟁산업 및 전략적 자원산업 등의 국유기업들은 혼합소유제로 전환되며, 외자 진입도 부분적으로 허가

- 우선 허가 또는 제한적 승인으로 되어 있는 산업군은 일반적 경쟁산업, 전략적 경쟁산업 및 전략적 자원산업의 3개 산업군임.
- 일반적 경쟁산업의 국유기업들은 지분투자로 전환되거나 시장에 의해 퇴출될 것이며, 외자기업의 M&A도 독려

- 전략적 경쟁산업이나 전략적 자원산업은 국유기업이 상대적인 통제를 하고 있으며, 외자기업의 M&A에는 제한적 승인을 하고 있음.
- 3개 산업군의 국유기업들은 향후 혼합소유제의 형태로 전환될 전망

표 3. 산업별 국유기업 특성과 외자기업 M&A

	구체적인 산업	산업적 특징	국유기업 통제력	외자기업 M&A 여부
일반적 경쟁산업	경공업, 방직, 일반 기계, 여행 등	낮은 진입장벽, 치열한 경제	지분 투자로 전환 혹은 퇴출	독려 또는 허가
전략적 경쟁산업	철강, 자동차, 장비제조, 화공, 조선, 항공운송 등	높은 진입장벽, 규모의 경제, 국내 산업 보호	상대적인 통제	제한적 승인
전략적 자원산업	석유, 비철금속, 석탄 등	국가안보와 관련 고투자 고수익	상대적인 통제	제한적 승인
전략적 고기술산업	항공우주, 핵공업, 기초전자	국가안보와 관련 전략적 기술	절대적 통제	엄격한 제한 또는 금지
자연독점산업	우편, 전력망, 철도, 항구, 공항, 전신	자연독점 경쟁 배제	주도적 통제	엄격한 제한 또는 금지
민감산업	신문, 출판업	정치사회적 영향이 큼	높은 비중 유지	엄격한 제한
공공사업	수도, 난방, 가스	자연독점 높은 공익성	절대적 통제	점진적인 제한 해제
리스크가 높은 산업	금융, 보험, 증권	국가 안보와 관련	주도적 통제	조건부 승인
특수산업	군사공업 등	특수한 업종	절대적 통제	금지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중국의 전략산업부문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경쟁상대로서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소매업, 철강산업, 조선업의 산업재편을 전망

● 석유화학산업은 전략적 자원산업으로 3대 국유기업들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음.

- 대표적인 국유기업인 중국석유(Sinopec)는 최근 혼합소유제 실험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유기업 개혁을 주도하고 있음.
- 민영 및 사회자본을 전체지분의 30%까지 제고시키는 중국석유(Sinopec)의 실험은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성공여부에 따라서, 전체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임.
- 민영기업들은 주로 상류부문보다는 하류부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인 산업집중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산업은 전략적 경쟁산업으로 생산설비의 과잉과 생산업체의 난립으로 인해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13년 상위 5개 업체의 집중도는 72.0%이며 상위 10개 업체는 88.0%이다. 또한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상위 10대 기업의 집중도를 9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4大4小” 를 중심으로 업계를 재편하고 M&A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육성을 하겠다는 방침이 담겨 있으면서도 치뤘이(奇瑞)와 같은 민영기업도 중점 육성기업에 포함
 -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모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정부의 정책보다는 업계의 경쟁력 구도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소매업은 일반경쟁산업으로 유통방식의 다양화, 온라인 소매업의 급속한 팽창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2013년 10대 기업 시장점유율은 6.6%에 불과할 정도로 산업집중도는 낮은 편이며, 미국(32.6%)과 일본(23.8%)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
 - 향후 효율적인 기업들만이 생존하는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M&A 등을 통한 산업집중도는 상승할 것임.
 - 2013년 소매업에서 36건의 M&A가 성사되면서 전년대비 44%가 증가
 -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모두 경쟁을 통해서 상호 인수합병이 진행될 것이며,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유리한 국유기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큼.

- 철강산업은 전략적 경쟁산업으로 대표적인 과잉생산 산업인 철강산업은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서 10개 상위기업의 산업집중도는 60%까지 제고할 전망이다.
 - 2013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철강생산량은 7억 7,900만 톤으로 1978년에 비해 무려 2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철강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8.5%에 달함.
 - 바오강, 안강, 우한강철, 소우강 등 대형 국유철강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M&A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중소형기업이나 수익성이 낮은 철강업체들의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지방정부와 일부 철강업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 조선업은 전략적 경쟁산업으로 조선인도량, 신규수주량, 수주잔량 등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유기업들은 중국선박중공(CSIC)과 중국선박공업(CSSC)에 속해 있으며, 상위 10개 기업의 산업집중도를 2010년의 48.9%에서 2015년까지 70%까지 높일 계획임.
 - 민영기업들이 장쑤, 저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최대 민간조선소인 쌍수룡성중공업이 파산하면서 향후 대형 국유기업 위주로 인수합병이 진행될 전망

표 4. 중국 산업별 국유기업 전망과 시사점

산업	산업유형	국유기업 전망	민영기업 전망	산업집중도	한국에 대한 시사점
석유	전략적 자원(독점)	Sinopec의 혼합소유제 실험	주로 상류부문보다는 하류부문에 진입 예상	큰 변화는 없음.	중국내 공급과잉 상황에 대한 대응 및 하류부문의 경쟁상황 분석 및 대응
자동차	전략적 경쟁	우수한 기업 중심으로 산업재편 하위의 지방 국유기업 정리도 쉽지 않음.	양극화 현상	2015년까지 상위 10개 기업 90% 달성 가능	경쟁 격화, 협력업체들과 함께 혁신모델
소매업	일반경쟁	치열한 경쟁속에서 정책적으로 유리한 국유기업 위주로 산업재편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의 경쟁, 상호 인수합병도 가능	산업집중도 상승 예상	외국기업 진입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경쟁은 치열
철강	전략적 경쟁	대형국유기업 중심으로 산업재편 진척	특정 부문에서 민영기업 성장가능	2015년까지 상위 10개 기업 60% 달성	지주산업으로서 외국기업의 진출은 제약이 지속될 것임. 철강산업의 세계적인 조정 상황에서 전략적인 접근 필요
조선	전략적 경쟁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대형 국유기업 위주로 재편	최대 민영조선소 파산되면서 민영기업 위축될 전망	2015년까지 상위 10개 기업 70% 달성	고부가가치로의 특화와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필요

자료: 저자 작성.

- 2013년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는 14개의 조선소를 8개로 통폐합하였고,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M&A도 진행
- 중국 조선업은 향후 인수합병에 의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로의 진출을 시도 하고 있음.

3. 정책 제언

가.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 진출에 대한 시사점

-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과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
 - 중국의 기업들은 활발한 M&A와 자회사간 통폐합을 통해 내수시장 진출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석유화학 하류부문의 경쟁상황을 분석하며 혼합소유제에 따른 민간자본 허용과 내실있는 지방 국유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모색
 - 한국 자동차기업들은 협력업체와 함께 혁신모델을 개발해야 하거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나 협력방안을 모색

- 중국 소매업은 향후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상호 인수합병이 가능한 상황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며 외국기업의 진입도 용이할 것으로 전망

● 시장경쟁을 중심으로 개정될 각종 규제와 법집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반독점법 집행 강화, 파산법, 기업 국유자산법 등을 시장경쟁중심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공정한 시장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 아래 외자기업 및 국유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규제를 더욱 강화할 전망
- 특히 혼합소유제를 통한 국유기업 개혁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 집행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2013년 이후 LCD, 분유, 맥주, 금·은가공 기업 등에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한 데 이어 외국 자동차업체와 마이크로소프트, 쉘컴 등 외국 IT기업에 이르기까지 반독점법 조사 범위를 확대

나. 글로벌 시장 내 치열한 경쟁

● 중국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제고될 경우 한국기업과 글로벌 경쟁력 심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

-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큼.
- 현재의 국자위 통제체제가 자본통제 위주로 전환된다면 그 비중은 높아질 가능성이 큼.
- 한국과 경쟁산업에서 중국기업들의 대형화와 글로벌화에 한국기업들은 철저히 대비
- 특히 중국이 1위를 차지한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그린환경보호선, 대형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선), 대형 액화가스운반선(VLGC), 대형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에 특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을 실현

●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형화와 해외 M&A에 대비

-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업다각화 자체와 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국유기업이 사업영역 확장의 필요에 따라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해외기업에 대한 M&A도 증가할 전망
- 비관련부문의 이윤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관련분야보다는 비관련분야에서의 다각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큼.

다. 글로벌 시장 내 협력 기회

-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산업 내에서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고 한국경제 전체에 있어서도 양국간 교역,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서 긍정적 영향을 기대
 -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및 협업의 여지를 파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 중국의 신산업은 민영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기업은 중국 민영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모색
 - 중국 민영기업은 집중화 전략 혹은 수직적 다각화를 추구하면서, 축적된 자본을 신산업에 투입
 - 중국정부도 신산업의 리스크를 민영기업이 직접 부담하면서 진출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
 - 復星(FOSUN)그룹은 국유자본의 배경이 일체 없이 제약·건설·철강·미디어에 걸친 다각화된 투자 그룹을 건설함.
 - 中國民生投資有限公司(中民投)는 민영은행인 民生銀行에 뿌리를 두고 500억 위안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신에너지·항공·물류·해외투자지원 등에 나설 계획임.